

- 서울특별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요금정산 방식 일원화를 위한 건의안 -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590
------------	-----

2015년 7월 10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6월 23일, 김태수 의원 외 14명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5년 6월 30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교통정책이 한국도로공사에 인하여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며, 용마터널 외에도 하이패스카드를 적용한 유료도로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음

- 특히,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의 원만한 협조관계 구축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나. 주요골자

- 서울시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요금정산 방식을 일원화하여 교통정책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주)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 유료도로의 정산사업자로 선정함
- 반면, 용마터널에 하이패스카드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가 해당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하이패스카드와 선·후불교통카드의 정산이 이원화되어 있음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원안 동의

라. 이송처

- 국 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정 부 :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가. 개 요

- 동 건의안은 서울시가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요금정산 방식을 일원화하여 교통정책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주)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 유료도로의 정산사업자로 선정하고 있는 바,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요금정산 방식 일원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임

### 나. 검토 의견

- 서울시는 '14.11월에 개통된 용마터널을 시작으로 '21.12월까지 6개의 민자 유료도로가 개통예정임에 따라 민자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정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의 과금 감소 증가 및 민자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상 등과 관련하여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주)한국스마트카드사를 유료도로의 정산사업자로 선정하였음<sup>1)</sup>

#### ※ 참고 : 민자 유료도로 건설계획

· 용마터널('14.11월)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16.5월)
· 은평새길('17.12월)	· 서울~제물포길('18.12월)
· 평창터널('21.12월)	· 서부간선지하도로('21.12월)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용마터널의 과금·정산 정책의 일관성·통일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1) 서울시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정산 계획(교통정책과-17014, 2013.8.13.)

에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사용을 위한 기술지원을 협조 요청한 바 있음에도<sup>2)3)</sup>

용마터널의 경우 서울시 정책과는 달리 하이패스카드와 선·후불교통카드의 정산이 이원화되어 있고, 서울시가 도로 관리청으로 있는 도로구간 내에서 서울시가 시행하는 정책이 한국도로공사의 비협조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가 서울시내 민자 유료도로의 도로관리청으로서 통행요금 과금 및 정산 정책의 반영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선·후불교통카드 발행사의 참여유도를 통한 시민편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교통정책과의 연계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인 바,

서울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요금정산을 서울시가 선정한 정산사업자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동 건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서울시장은 동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원안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음<sup>4)</sup>

---

2) 서울시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시스템 구축 관련 협조 요청(도로계획과-2984, 2014.3.7)

3) 서울시 유료도로 과금정산시스템 관련 협조요청(교통정책과-5015, 2014.3.13)

4) 교통정책과-13025(2015.6.25.)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요금정산 방식 일원화를 위한 건의안

서울시는 유료도로를 신규 확대시 신규 유료도로에 하이패스 및 선·후불교통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시민편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요금정산 방식을 일원화하여 교통정책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주)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 유료도로의 정산사업자로 선정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는 2014년 신규 개통한 용마터널에 하이패스카드 적용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하이패스카드 SAM규격 및 테스트시료 제공 등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는 한국도로공사가 타당한 이유 없이 해당 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의 정책과는 다르게 하이패스카드와 선·후불교통카드의 정산이 현재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가 도로관리청으로 있는 도로구간 내에서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교통정책이 한국도로공사에 인하여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용마터널 외에도 하이패스카드를 적용한 유료도로를 확대할 계획이 있음에 따라 앞으로도 하이패스카드와 선·후불교통카드의 정산 이원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

고 이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공공재인 하이패스와 관련된 제반 기술사항을 최대한 공개하고 관련 지자체의 정책과 원만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회는 용마터널의 정산방식이 이원화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울시 유료도로 관련 정책이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요금정산 방식 일원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5.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